

## 李鼎輔 愛情類 辭說時調의 構造 考察

— 性的 내용을 다룬 세 작품을 대상으로 —

김성면\*

### <국문초록>

이정보의 시조가 『海東歌謠』(周氏本)에 82수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설시조가 20수이다. 이 사설시조 중에서 본고에서 분석한 작품은 '남녀의 性行爲', '肉慾', '상대의 誘惑'을 다룬 작품 3수이다. 이 작품들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다른 사설시조들 중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이 비교는 이정보의 세 작품들이 갖는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이루는 글감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유형화되었다.

둘째, 의도한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치밀함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의도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다루어 완전무결하게 표현하여 최고, 최상의 효과를 노렸다.

넷째, 그러한 의도가 일정한 구조의 틀을 갖추고 있다.

**핵심어** : 이정보, 사설시조, 해동가요, 애정, 육욕, 구조의 틀

\* 전북대

## I. 序 論

『海東歌謠』(周氏本)에 三洲 李鼎輔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 시조 작품은 82수인데, 그 중 辭說時調는 20수<sup>1)</sup>이다. 그런데 사실시조는 無名氏 작가의 작품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정보의 이름으로 20수나 되는 분량의 사실시조가 『海東歌謠』(周氏本)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특기할 현상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작가 문제가 고증될 수 있을 때, 이 작품들을 특정한 작가의 이름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작품들을 해동가요에 소개한 대로 이정보의 작품으로 우선 인정하고, 이 작품들 중에서 愛情, 특히 性的인 내용을 다룬 작품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대개 愛情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남녀 사이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sup>2)</sup> 본고에서는 남녀 사이의 사랑<sup>3)</sup>에서 그 사랑이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어 행해질 때 일어나는 것을 사랑의 행위로 규정하고, 대상 작품은 ‘남녀의 性行爲’,

- 1) 이정보의 사실시조 작품수에 대한 기존 견해는 다음과 같다.

秦東赫(『時調文學研究』, 『李鼎輔研究』, 정음사, 1980)은 12수, 黃忠基(『國語國文學』 제55~57합병호, 『李鼎輔의 辭說時調 小考』, 1972)에서 이정보의 것이 아니거나 김수장의 것으로 추론하고, 『長時調研究』(국학자료원, 2000)에서는 20수, 具壽榮(『古時調作家論』, 『李鼎輔論』, 한국시조학회, 백산출판사, 1986)은 17수로 인정하였다.

- 2) 전재강은 애정이 어떤 이념과 조건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남녀 이성간에 사랑하는 모든 감정과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와 달리 인간이 이성 아닌 다른 인간(부모, 형제, 통치자 등)을 사랑하거나 그 외의 대상들(동물, 식물, 관념 등)을 수용 애착하는 감정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시조에서의 애정문제(1)』, 단형 시조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11집, 문학과 언어학회, 1990, 296쪽.)
- 3) 崔雲植은 남녀의 애정에 관계되는 내용을 ① 사랑과 肉體의 情을 노래한 것, ② 離別의 아픔을 노래한 것, ③ 그리움과 기다림의 情을 노래한 것, ④ 怨과 恨을 노래한 것, ⑤ 再會의 기쁨을 노래한 것, ⑥ 其他 등으로 구별하였다.(『古時調에 나타난 男女의 愛情』, 『國際大學論文集』 제8집, 1980, 6쪽.)

‘肉慾’, ‘상대의 誘惑’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을 다룬다.

이 작품들을 ‘愛情類’라 호칭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편의상 호칭한 것<sup>4)</sup>이며, 20수 중에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다룬 것이 1수<sup>5)</sup> 있으나 본고의 고찰 초점인 肉慾的이고 貪色的인 내용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 II. 構造 分析

서론에서 밝힌 대로 이정보의 사설시조 중에 性的인 내용, 즉 남녀의 性行爲, 肉慾, 상대의 誘惑을 다룬 작품들은 각각 1수씩 3수가 있다. 이 작품들의 구조를 1수씩 제시하며 분석하기로 한다.

### (1) 性行爲의 묘사

초장	㉔[간밤의 즙고 간] 그놈	㉕[(압아도)] 못 니즐다	
중장	㉖[瓦冶入놈의 아들인 지] 큰흙의 썬너드시	㉗[두더쥐 숨인 지] 국 국기 뒤지듯시	㉘[沙工의 成伶인지] 서 어썩로 지르드시
	㉙[평생에 처음이오 凶症 이도 야르제라]		
종장	㉚[前後에 나도 무던이 격거시되]	㉛[(춤盟誓) 간밤의] 그 높은	㉜[(춤아)] 못 니즐시 [하노라]

〈海周 383〉

- 4) 이정보의 작품 중에 평시조에도 다음과 같은 애정류 3수가 있다.
- 어화 네여이고 반갑소도 놀라왜라 / 雲雨陽臺에 巫山仙女 다시 본 듯 / 압아도 相思一念이 病이 될까 호노라.<322>
  - 늻싸야 맞난 님을 덧업씨도 여회건져 / 消息이 굶썬들 꿈에나 안이 빌야 / 님이야 날 생각할야만은 나는 못 니즐까 호노라.<332>
  - 어화 造物이여 곱오도 안이 흘싸 / 접이 雙雙 나뭇 雙雙 翡翠 嫵鶯이 다 제 썩이 삼겼거늘 / 잇덧타 에엿분 이너 몸은 獨宿孤房 호는이.<360>
- 5) 중놈이 접은 사당년을 엇어 師父母의 孝道를 그 무어슬 호야 갈썬 / 宋杞씩 갈 宋편과 더덕片脯 芋椒佐飯 회호로 다달아 석업취라 삼주 고살이 글언 퇴남을 과 들बाट로 날이달아 곱달리라 물썩 계유목 썬다지라 썬박위 잔다귀라 고돌 썩이 들오 키야 바랑썩게 너허가지 / 무어슬 타고 갈고 / 어화 雜말 호다 암쇼 등에 언치 노코 시숫갓 모시長衫 곳갈에 念珠 맞쳐 어울 타고 가리라.<390>

이 작품의 작중 화자는 여성이다. 이것은 그 대상을 ‘그놈 / 아들 / 命息 / 沙工의 成伶<sup>6)</sup>’이라고 지칭한 것이나 성행위의 묘사에서 확인된다. 중장에 성행위가 直喻的인 표현으로 赤裸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에 화자의 貪色的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작품의 구조 대강을 먼저 살펴보면, 초장의 ‘그놈 못 니즐다’와 종장의 ‘그놈은 못 니즐[하노라]’는 동일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수미상관의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초장의 ‘아마도’의 막연한 판단이 ‘춤아’의 단정적인 판단으로 바뀐 것에서 의미의 심화로 전개된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초장에서는 ‘그놈 못 니즐다’의 원인은 ‘간밤의 행위’이다. ‘아마도’에서 그 행위가 만족스러웠음을 표출한다. 이 행위가 중장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묘사는 종장의 ‘춤아’로 연결되어 욕구의 심리를 유도한 것이 된다. “간밤의 즙고 간 그놈 아마도 못 니즐다”에서 ‘간밤의 행위’에 視點이 모아지는 것은 그 행위가 성행위일 것이라는 짐작에서이다.

중장에 비유적으로 묘사된 행위는 바로 성행위이다. ㉠/㉡/㉢의 앞 구절 “瓦冶스놈의 아들인지”/“두더쥐 命息인지”/“沙工의 成伶인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용을 한다. 이 표현에서 ‘-인지’는 ‘그놈’의 정체에 이 작품 자체에 제시되지 않은 것을 암시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행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한 예로 ‘진흙을 이기는’ 행위에 “瓦冶스놈의 아들인지”를 첨가하면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성행위를 묘사한 것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어서 생동감이 있다. “즌

6) ‘成伶’은 그 앞 어휘들(아들 / 命息)로 미루어 ‘(다 큰) 아들’이 알맞을 것이며, ‘伶’의 뜻에 비중을 두어 ‘사공 수련자’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이나, ‘성녕’의 ‘匠人’이나 ‘손으로 하는 작업’은 적절하지 않다.

흙을 썩너드시”는 진흙을 잘 이기기 위해 발로 세세히 꺾꺾 밟아야 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며, “국국이 뒤지드시”는 두더쥐가 땅을 파듯이 살살이 파내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며, “스어씨로 지르드시”는 사공이 배를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긴 장대를 물밑 바닥까지 닿도록 깊숙이 찢러 넣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이 묘사는 하는 일의 목적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곧 기법을 성행위에 대입함으로써 최대의 쾌감을 얻은 결과를 형용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의 쾌감을 “평생에 처음이오 凶症이도 야르제라”라고 표현하였다. ‘처음이오 야르했다’는 최상의 만족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동일한 행위를 세 번 반복한 것은 그 만족심리를 만족할 만큼 완전히 표출해내기 위한 의도에서 일 것이다.

중장의 이 쾌감이 중장에서 “춤盟誓”를 할 만큼 그 완전한 만족감으로 거듭 토로된다. 그리고 “前後에 나도 무던이 격거시되”는 그 만족감을 보완하는 표현이지만, 특히 ‘무던이(대단히)’로써 성적 탐욕을 여실하게 드러낸 표현이기도 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작품은 성적 탐욕의 만족을 아주 적절하게 형용하기 위하여 완벽하고 철저하다고 할 정도의 성행위 기법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데서 성공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초장과 중장의 동일 표현의 반복 및 중장의 동일 내용의 반복은 이 작품의 율동성을 확보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골격을 찾아보면, 중장의 세 행위는 ㉑의 “평생에 처음이오 凶症이도 야르제라”로 함축할 수 있고, ㉒의 “前後에 나도 무던이 격거시되”는 보조적인 성격에서 생략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골격은 초장 ㉓과 중장의 ㉑와 중장의 ㉒와 ㉑를 간추려낼 수 있다. 이것을 내용에서 주제문 형식으로 더 간추리면, ㉑㉒㉑가 될 것이다.

## (2) 肉慾의 묘사

초장	㉔남으람 淮陽 金城 오리 남기 되고	㉕나는 三四月 늑너출이 되야	
중장	㉖' 그 남게	㉗' 그 늑이	
	㉘[낙점의 남의 감듯]		
	㉙일리로 촘촘 절리로 촘 촘	㉚외오 풀러 올히 감아	㉛얼거져 틀어져
종장	㉜밋부터 쫓사지 조곰도 뵈툼 업시	㉝찬찬 굽의나게 휘휘 감겨	㉞[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 잇셔
	㉟冬섯썰 바람 비 눈 설 이를 암으만 맛즌들	㊱썰어질 썰 이실야	

〈海周 386〉

이 작품에서 작중 화자의 정체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에서이다. 우선, 시조 작품들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내는 사람은 여성 화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표현에 근거하여 나무가 녁쿨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 남성과 여성의 성적 형용에 비겨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두 경우를 감안하여 화자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따름이다.

이 작품의 내용은 영원한 사랑의 지속을 표현하고 있다. 이 사랑의 영원한 지속 상태를 나무에 녁쿨이 감겨 있는 일상의 모습으로 비유하였다. 남성을 여성이 감싸 안고 있는 형태를 비유한 이 표현의 적나라함에서 성적 의도도 읽어낼 수 있다.

초장은 임과 화자의 성격을 제시한다. '三四月'의 녁쿨은 한창 생기가 올라 뻗어나는 상태를 암시한 것이라면, 오리나무는 상대적으로 강건한 남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의 지역인 '淮陽' '金城'을 단순히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예컨대, 다른 사설시조에

“藍端 寧海 盈德 玆糖각사…”<sup>7)</sup>를 참작하면, 강한 성적 의미를 담은 표현일 것이다. 중장의 “그 남게”(㉔’) “그 늪이”(㉕’)가 다시 제시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써 화자 자신이 입에 대한 심정을 토로 하되, 비유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중장에서 ㉔~㉕의 표현 “일리로 촌촌 절리로 촌촌 / 외오 풀러 올히 감아 / 얼거져 틀어져 / 밋부터 슯까지 조금도 빈틈 업시 / 찬찬 굽의 나게 휘휘 감겨”는 그 앞의 ㉔ “낙검의 남의 감듯”에서 이미 제시된 행위이다. 이런 상관적 표현 방법은 앞 작품의 중장 분석 중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의 구체적인 강화를 의도한 기법이다. 이 표현들은 철저하게 밀착되어 떨어지지 않을 상태를 표현한 것이 ‘이리로 저리로 / 거꾸로 바로 / 엷고 틀고 /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 틈 없이 / 찬찬히, 휘휘’이다. 더 이상 첨가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표현은 화자의 강렬한 의도를 표출한 것이다. 곧, 거미가 나비를 감듯이 입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싸는 방법들을 類型 별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이 표현 방법 또한 앞 작품의 중장 분석에서 설명한 대로 동일한 의미의 반복을 통해 의도를 심화하려는 의도적인 기법과 같다. 이 의도적 의미는 이 표현들에 이어 나오는 ㉖ “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 잇셔”로 수렴된다. 즉, 앞의 밀착 의도는 ‘晝夜長常’에 포괄되며, “뒤트러져 감겨 잇셔”는 그 표현들과 같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앞의 ㉔와 이 ㉖으로써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법 또한 앞의 작품 분석에서 설명되었다.

이 중장의 내용은 결국 화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그 표현은 그 의도의 심리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 의도와 심리가 더할 수 없이 철저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발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별에 대한 불안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7) 『靑丘永言』(진본) ‘蔓橫清流’의 한 작품(순번 526).

것이다. 즉, 그 불안에 대한 보상심리가 철저하여 만족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표현한 것이 이 표현들의 성격인 것이다.

중장에서 ㉠ “冬섯쌀 바람 비 눈 설이를 암으만 맛즌들”은 흑한이나 폭설과 같은 외부의 장애요소를 설정한 것이다. 이 장애요소는 타의에 의한 이별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 ㉡ “떨어질 쑤 이실야”는 어떤 장애아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작품의 표현들은 철저하게 임이 나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나도 임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심리를 완벽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이 내용을 압축하면, ㉡b㉠k가 그 골격이 된다.

### (3) 誘惑의 묘사

초장	㉡[생미갓튼] 저 關氏님	㉢남의 肝腸 그만 솟소	
중장	㉣돈을 줄야 銀을 줄야	㉣大緞 침야 鄉職唐衣 亢羅속췌 白綾헐잇디	㉤[굴름 갓튼] 北道사리 (사리) 玉빈혀 竹節빈혀
	㉥銀粧刀   라 金貝즈르 金粧刀   라 蜜花즈르	㉦[江南서 나오신] 珊瑚 柯枝자기	㉧[天桃青鸞 박은] 純金 갈악씨
	㉧石雄黃 眞珠당게 繡草 鞋를 줄야		
종장	㉨저 님야 [-萬兩이 씬 잘리라]	㉩[꽃 갓튼 寶조기에 옷 는 듯 췌기는 듯]	㉪千金 言約을 暫間 許諾호여라

〈海周 392〉

이 작품은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작중 화자가 남성이다. 그리고 화자가 여성을 재물로 유혹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재물은 그 자체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초장에서 ‘關氏’의 비유 대상인 ‘생매’는 아주 생기가 가득 차 매력적인 한편, 남성의 마음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날카로운 성격까지 담아내



고 있다. 이 후자의 성격은 ⑥ “남의 肝腸 그만 곳소”라는 남성 화자의 애절한 호소로 더욱 부각된다. 이 남성의 호소 내용은 종장에서 “저 남아 … 千金 言約을 暫間 許諾하여라”로 바뀌어도 간절함은 더 하더라도 그 의미는 마찬가지이다. 내적 의미의 측면에서 초장과 중장의 내용은 수미상관의 구성을 이룬다. ‘千金’은 그 가치를 뜻하여 각시의 허락을 받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음을 함축한 표현이다.

중장은 각시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그 내용을 이룬다. ③ “돈을 줄야 銀을 줄야”는 여성을 물건처럼 사겠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곧 여성의 의복, 장식노리개, 가락지, 신발 등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신체 전체를 장식할 화려한 여성 전용 물건들을 유형별로 아주 세밀하게 제시하여 각시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돈’이나 ‘은’의 재물로 각시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을 시사한다. 그 많은 물건들의 나열은 남성 화자의 간절하고 조급한<sup>8)</sup> 심리를 암시한다. 이 물건들이 신체 전체를 치장할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 어느 것이 없어도 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심리는 ‘생매 같은’ 각시의 외모가 아니라 성적 탐욕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성적 탐욕은 종장의 ①의 ‘꿈자리’가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중장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一萬兩이 꿈잘리라 … 千金 言約을 暫間 許諾하여라”에 나타나는 남성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표출한 것인데, ‘一萬兩’과 ‘千金’은 중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일 뿐, 남성 화자의 관심은 ‘잠자리’이다. 그리고 “꽃 갓튼 寶조기”는 ‘생매 같은 각시’와 같이 아름다운 외모를 형용한 것이다. 이 표현은 단순히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꿈자리’에 이어 나옴으로써 그 의도적 의미를 이어받아 성적 욕구 심리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된다. “웃는 듯 췌기는 듯”이,

8) ‘조급하다’ 한 것은 이러한 물건의 나열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效顰의 고사를 연상하게 하는데, 西施와 같은 미인을 암시한 것이라면 이 표현 ㉞는 의미가 중첩되어 성적 탐욕의 의도를 심화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暫間'은 남성 화자의 애타는 간절한 심리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잠간'은 '잠자리의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지만, 그 시간의 '짧음'은 남성 화자의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한편, 남성 화자는 각시가 허락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이 종장의 내용은 중장에서 길게 늘어진 사설의 의미, 즉 성적 탐욕 심리가 압축되어 긴장감 있게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남성 화자가 성적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 각시를 유혹하려는 방법으로 여성의 의복 및 장식물을 유형별로 제시한 것은 이 작품이 치밀하게 구성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치밀한 구성은 앞의 두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원인은, 특히 중장들에서 내용들이나 글감들을 유형화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하게 표현하고 배열하여 그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 Ⅲ. 他 作品과의 性格 比較

다음 시조들은 『靑丘永言』(진본)의 「蔓橫清流」 항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앞에서 분석한 이정보의 세 작품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각 작품에 한 작품씩 임의로 선정한 작품이다.

- ㉞ 半여든에 첫계집을 하니 어렸두렷 우벼주벼 주글 번 살 번 ㅎ다가  
와당탕 드리드라 이리저리 ㅎ니 老都令의 모습 흥글항글  
眞實로 이 滋味 아뎏던들 곁 적보터 ㅎ랏다. <508>

이 작품은 성행위를 묘사한 작품이다. 앞의 「性行爲의 묘사」항에서 분석한 이정보 작품과 비교해 보면, 이 작품은 노골적으로 성적 쾌락심리를 묘사했다는 점에서는 앞의 작품과 같다. “어렸두렸 우벽주벽 주글 번 살 번 흐다가 와당탕 드리드라 이리저리 흐니”가 성행위를 묘사한 부분이다. 이 표현은 그 행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 독자가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이 표현 또한 의도적인 표현이지만, 이정보 작품과 비교하면 이정보 작품에서의 섬세하고 치밀한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㉞ 어이 못 오던다 므스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우희 무쇠로 城을 ㅁ고 城 안헤 ㅁ ㅁ고 ㅁ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지 노코 두지 안헤 ㅁ를

노코 ㅁ 안헤 너를 結縛하여 노코 雙비목의결새에 龍거북즈물쇠로 수기  
수기 줍жат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흐 들이 설혼날이여니 날 보라 올 흐리 업스랴. <568>

이 작품은 임이 못 오는 것에 대하여 화자의 심리를 외부 사물로써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특히 중장의 표현에서는 점강적이고 연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어느 한 부분을 빼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치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현과 「肉慾의 묘사」항에서 다룬 이정보 작품과 비교해 보면, 이정보 작품에서 긴장감이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 작품 ㉞의 표현이 글감의 고정된 의미를 단순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이정보의 작품에서는 그 내용에 화자심리를 치밀하게 응결시킨 표현을 구사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㉟ 男兒의 少年行樂 히을 일이 흐고 하다

글늉기 칼쁘기 활쁘기 몰돌리기 벼슬하기 벳사피기 술먹기 쫓하기 花朝

月夕 노리하기 오로다 豪氣로다

늑개야 江山에 물러와서 밧갈기 논딴기 고기낙기 나모뵈기 거문고특기  
바둑두기 仁山智水오遊하기 百年安樂하여 四時風景이 어너 그지 이시리  
<566>

이 작품은 '남아의 할 일'을 다루었다. 이 작품 또한 단순하게 글감들을 나열한 점에서 긴장감이 약하다. 그 까닭은 앞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고정된, 일상생활에서의 할 일을 거의 모두 열거하였기 때문이다. 「誘惑의 묘사」에서 다룬 이정보 작품에서 나열된 글감들은 정해진 용도의 측면에서는 이 작품과 다를 것이 없으나, 신체 각 부분을 구분하여 머리(위)에서 발(아래)까지 세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이 이 작품과 다른 차이점이다. 이러한 배열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배치한 결과인 것이다.

## V. 結論

이정보의 시조가 『海東歌謠』(周氏本)에 82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설시조가 20수이다. 이 사설시조 중에서 본고에서 분석한 작품은 '남녀의 性行爲', '肉慾', '상대의 誘惑'을 다룬 작품 3수이다. 이 작품들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다른 사설시조들 중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이 비교는 이정보의 세 작품들이 갖는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이루는 글감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유형화되었다.  
둘째, 의도한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치밀함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의도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루어 완전무결하게 표현하여 최고, 최상의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넷째, 그러한 의도가 일정한 구조의 틀을 갖추고 있다.

#### <참고문헌>

- 구수영, 「李鼎輔論」, 『古時調作家論』, 한국시조학회, 백산출판사, 1986.  
전재강, 「고시조에서의 애정문제(1)」, -단형 시조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11집, 문학과 언어학회.  
진동혁, 「李鼎輔研究」, 『時調文學研究』, 정음사, 1980.  
최운식, 「古時調에 나타난 男女의 愛情」, 『國際大學論文集』, 제8집, 1980.  
황충기, 「李鼎輔의 辭說時調 小考」, 『國語國文學』, 제55~57합병호, 1972.  
황충기, 『長時調研究』, 국학자료원, 2000.

#### <Abstract>

### A Study on Sasulsijo by Lee Jeon-Bo

Kim Sung-Meon

“Haedonggayo(海東歌謠)” has 82 sijo poems written by Lee, Jeong bo, including his 20 saslsijo. In this paper, 3 saslsijo are analyzed. Their themes are ‘performing a sexual act’, ‘sensual appetites’, ‘temptation’. Result from analyzing these 3 saslsijo was compared to other saslsijo. The purpose of this comparison is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his three works. Four consequences are obtained.

First, materials of these three works are not just arranged in a row

but set systemically.

Second, designed meaning is showed concretely.

Third, these three works have everything that is needed to represent designed meaning.

Forth, designed maeaning has fixed form.

*Keywords* : Lee Jeong-bo, saslsijo, performing a sexual act, sensual appetites, temptation, structure, form

논문투고일 : 2004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7월 7일